

1.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2.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3.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4.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언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 후렴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 322장 -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1.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2. 세상의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3.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뤄주소서 아멘

### 기도 담당

8/2(화)	8/3(수)	8/4(목)	8/5(금)	8/6(토)	8/8(월)
서원석1 집사	박병근 집사	이철용 집사	김종관 집사	문석영 집사	이형수 집사

## 이른아침예배

인도 : 이요한 목사

예배를여는말	인도자
신앙고백	사도신경
찬송	80장
기도	김종관 집사
성경봉독	역대하 1:6-12
찬양	주 오늘 다시 오시면
설교	『무엇을 구할 것인가?』
기도	준비된 기도문을 따라
찬송	322장
축도	설교자

### ◆ 오늘의 말씀 < 역대하 1:6-12 >

6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 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천 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7 그 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8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9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의 타끌 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10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이까 하니 11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네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네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12 그러므로 내가 네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네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네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 새문안교회 이른아침예배 기도문

2022년 8월 5일(금)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크신 은혜와 사랑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친히 동행하시기에 때로 지치고 힘들어 넘어질 때도 있지만 오늘까지 지내올 수 있었습니다. 세상 끝 날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더욱 감사드립니다. 솔로몬의 간구를 통하여 과연 신앙인들이 무엇을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지 깊이 생각하게 하셨습니다. 나의 정욕과 이기적인 목적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나아가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주님께 구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시는 주님, 일찍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 가운데 언더우드 선교사님을 통해 대한민국의 중심에 새문안교회를 세우시고 복음 전파와 민족복음화에 앞장서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며 충실하게 맡겨 주신 사명을 지혜롭게 잘 감당하는 교회되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강하게 임하여 드러지는 예배마다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회복과 치유의 감격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어려운 시대일수록 성도들이 믿음으로 하나 되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깨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중등부 여름수련회와 청년대학부 여름 국내선교에도 예비한 은혜를 주시고, 주의 자녀들이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시는 하나님, 대한민국을 주의 강한 손과 편 팔로 굳게 붙드시고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경외하는 제사장 나라 되어 세계 각국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옵소서. 코로나 19가 속히 종식되고, 국민들이 일상의 자리로 돌아가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여전히 남과 북으로 분단된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시어 주님의 때에 복음 통일을 이루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